

오지호 미술 아카이브 '팔레트 위의 철학'

4~13일 은암미술관 사진·논문 전시
추상·불교 작품 처음 선보여
4일 세미나...유튜브 생중계도



오지호 화백의 화업과 삶을 돌아보다

한국화단의 큰 별 오지호 화백(1905-1982)의 화업과 삶을 돌아보는 아카이브전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과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이 공동 주관하는 '오지호 미술 아카이브:팔레트 위의 철학'전이 4일부터 13일까지 은암미술관 1·2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 제목은 오 화백의 자녀 오난희, 오순영이 신문, 화집, 팸플릿, 논문집을 정리해 지난 1999년 펴낸 '빛과 색채의 화가, 모후산인 오지호-팔레트 위의 철학'에서 따왔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선도자이자 광주 서양화단 1세대로 활동해 온 오 화백은 서구 인상주의를 한국 환경에 맞도록 해석하고 표현한 화가이자 자신이 연구한 회화 이론과 표현 방법을 후세에게 가르친 교육자였다.

미술평론가 김허경씨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그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새롭게 소개하고, 미술사에서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았던 사실들을 확인해 아카이빙 한 게 특징이다. 또 오 화백이 시인 최현규의 시집 '길'의 표지화로 그린 추상 작품과 제작 당시 '12보살상'으로 불렸던 오 화백의 유일한 불교회화 작품 '아미타후불탱화' (성보박물관 소장)도 귀한 자료다.



'아미타후불탱화'

전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했다. 제1섹션은 서양화 입문기(1925-1930), 인상주의(1931-1944) 전작기 오지호의 성장기와 동경미술학교 시절, 귀국 후 민족주의 미술운동 단계 '녹향회' 활동과 한국 최초의 원색 화집 '오지호-김주경 이인화집' (1938) 발간에 관한 실물자료를 전시한다. 제2섹션은 해방(1945-1953)과 한국전쟁기 직후에 이루어진 첫 개인전 '오지호화백 작품전' (1948) 등을 만날 수 있는 코너다.

제3섹션은 미술비평과 교육론을 바탕으로 신문기

사, 작가 노트, 서신, 브로슈어, 도록 등 과거의 매체를 현재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도록 구성했으며 제4섹션은 인물사진, 풍경화, 구술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광주시 지방기념물 6호로 지정된 광주 지산동 작업실도 일부 재현했다.

오 화백의 인물론과 추가 발굴자료의 아카이브 현황 등에 대해 다루는 세미나도 열린다. 4일 오후 2시 '오지호의 삶과 화업'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조인호 광주미술문화연구소 대표가 맡아 진행하며 기조 강연자 김연나(서울대 명예교수)와 발제자 오병희(광주시립미술관 학예사), 김허경 등 3명이 참여한다. 또 토론에는 박현화(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관장), 장민한(조선대 교수), 송필용(서양화가) 등 5명이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통문화관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방송으로도 진행된다.

전시 기획자 김허경씨는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자료 등 오지호 화백과 관련된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그가 남긴 기록물을 살펴보면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지, 예술가의 화업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몽유도원도'에 파꽃이 내려앉아

방개양 개인전, 7일까지 관선재 갤러리

서양화가 방개양 개인전이 오는 7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관선재 갤러리에서 열린다.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는 '파'를 뜻하는 한자 '파(斷)'에서 알 수 있듯 안경의 '몽유도원도'를 보고 느낀 감흥과 그가 오랫동안 작업해온 파꽃 그림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전시에서는 올해 새롭게 작업하기 시작한 신작 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안경이 1447년에 그린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도원을 방문하고 그 꿈 내용을 안경에게 전해 그려진 작품으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한 화폭에 어우러져 있다.

방 작가는 학교 교정을 거닐다 문득 '안평대군의 꿈'을 떠올렸다. 이어 자신은 물론이고 누구나 꾸는 '꿈'으로 생각을 넓혀나갔고, 나고 자란 도시에 관심이 닿았다. 도시를 장식하는 아파트처럼 '인위적인 것'들에 모든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꿈'은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 그 이야기들을 화폭에 풀어냈다.

그림 속에는 높이 솟은 아파트 숲 사이로 안온한 자연의 풍경들이 보인다. 쏟아지는 폭포가 있고, 높이 솟은 산, 흘러가는 구름,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누구나 쉬어가는 정자가 등장한다. 바다에 낚시대를 드리우는 누군가의 모습도 보인다. 요란하지 않고 차분하고 정이 넘치는 풍경들을 넣고 싶은 마음의 발로다. 여기에 자연 풍광, 아파트와 어우러진 파꽃은 화폭에 여유를 제공한다.

화려한 색감을 주로 사용하던 평소의 작품과 달리 흑과 백이 주조를 이루는 수묵 느낌의 색채감도 눈길을 끈다.



'몽유도원도 2020'

방 작가는 "도시의 상상이 인공적 구조물이 아닌, 자연적인 요소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작업했다"고 말한다. 조선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방 작가는 지금까지 14회 개인전을 열었으며 현재 남부대 겸임교수, (주)미탈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예스24 '2020 올해의 책'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예스24가 진행하는 '2020 올해의 책'에 오리어인 작가의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가 1위에 선정됐다. 지난 11월 9일부터 실시한 독자 투표에는 모두 35만6295명이 참여했으며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는 2만6649표(2.1%)를 획득했다.



예스24는 사전 추천제를 도입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돈의 속성', '김미경의 리부트', '시선으로부터',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등을 포함한 총 100권의 후보작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여파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세이가 많은 선택을 받았다.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를 포함해 김수현 작가의 신작, 방송인 김이나, 허지용의 솔직한 이야기 등 에세이 총 8종의 올해의 책에 올랐다. 또한 '부'와 '돈', '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김승호 회장, 존 리 대표 등의 경제경영서도 4종 선정됐다. 올해의 책 투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정성들여 우려낸 찻물...무덤덤한 일상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현주 에세이 '네 번째 우려낸 찻물' 펴내

"몹시 추웠던 겨울, 방황하던 내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했던 사람. 이제는 그를 찾아 인사를 올리고 싶었다.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던 그가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내게 내주었던 녹차, 색이 진하고 맛이 짙은 녹차, 뒷맛이 달콤한 녹차. 나는 그에게 차 한 잔,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말았다."

소설가에게 차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글 쓰는 틈틈이 졸음이나 쫄자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작가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시간들이 고요히 흐르고 있을 것 같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김현주 작가가 에세이집 '네 번째 우려낸 찻물' (이덕순 출판사)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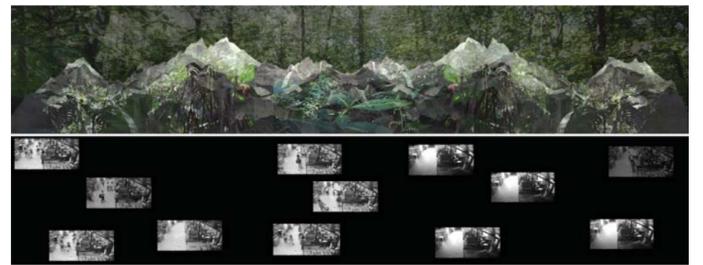
책에는 '오동꽃 그늘 아래서', '초봄에 난초차', '몽글몽글 벌레똥차', '동백나무와 빗새', '물속에 핀 꽃무릇', '오리가 있는 호수의 풍경' 등 저자가 차를 마시며 기웃거린 자연과 찻자리를 함께하며 들여다본 시간이 담겨 있다.



저자는 좋은 사람살이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달았다고 한다. 아마도 따뜻한 차를 마시듯 상대와 소통하는 일이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인 듯하다.

소설가답게 간결하면서도 맛깔스럽게 풀어내는 글은 정성들여 우려낸 찻물 같은 느낌을 준다. 한 편 한 편마다, 삶을 바라보는 진지한 시선과 사람들의 인연이 잔잔한 여운처럼 드리워져 있다. 작가는 "네 번째의 담담한 차 맛 같은, 무덤덤한 일상이 참으로 소중하다"며 "매일 차 한 잔 마시고 밥 먹는 일상, 인생다반사. 그에게 감사할 일이다"라고 말한다.

한편 장흥 출신 김현주 소설가는 창작집 '물속의 정원들'을 펴냈으며 숭실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김자이 외 4인 'Way of Survival'

국제 레지던시 오버랩 'Way of Survival' 전

15일까지, 김자이·설박·레이몬드 레가스피 등 4명 작가 참여

코로나 시대, 한국과 필리핀 예술인들이 비대면 소통을 통해 협업한 작품을 선보이는 색다른 전시가 열린다.

국제 교환 레지던시와 전시 교류 활동을 지속해 온 오버랩은 오는 15일까지 'Way of Survival'을 주제로 김자이, 설박(광주·한국), 레이몬드 레가스피, 마니 몬텔리바노(바클로드·필리핀) 작가 4인의 비대면 공동창작 작품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삶과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예술적 시각으로 풀어낸 기획이다. 또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물리적 거리의 한계가 줄어들고 가상 환경에 대한 접근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미디어 기반의 새로운 공동창작을 실험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김자이 & 설박 작가는 각자가 작업해 온 주제인 숲, 산수가 중첩되는 '휴식의 풍경'을 통해 현재의 비대면 일상 속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에 집중하며 치유가 필요한 지금의 현실에 휴식에 대한 사유를 전달한다. 또 마니 몬텔리바노 & 레이몬드 레가스피 작가는 감시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사람들로 붐비거나 텅 빈 상태의 '슈퍼마켓' 모습을 교차하며 일상이 통제되면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긴장감 있게 풀어낸다.

두 개의 영상은 네 사람의 예술가들에게 전달된 뒤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영상으로 겹쳐지며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문의 062-351-225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귀원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